

서난이 전북도의원 당선자, 당 비상대책위원 내정 관련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으로 내정된 서난이 전북도의원 당선자는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의 바람을 만들어온 청년 정치인입니다.

2014년 전주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등단하여 재선의원을 지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회 의원에 당선하였습니다. “내 딸 같은 시의원”이라는 모토로 현안이 있는 현장에 발 빠르게 달려가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열정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비례대표에서 지역구로 재선에 도전했을 때는 ‘서난이펀드’를 개설하여 3일 만에 4천만 원을 모금을 완료했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정치인들의 정치 진출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평가받아 지난 대선에서는 기초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청년선대위에서 공동청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서난이 비대위원은 앞으로 호남의 목소리, 청년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를 비대위원회에서 대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난이 위원은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협의를 통해 내정되었고, 내일 1차 비대위원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학력]

2005 전주한일고등학교 졸업

2011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2013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2016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박사 수료

[경력]

2014~2022 전주시의원

2022~현재 전북도의원

2020~현재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위원

2021~현재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2021~2022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청년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2022. 6.12

더불어민주당 공보국